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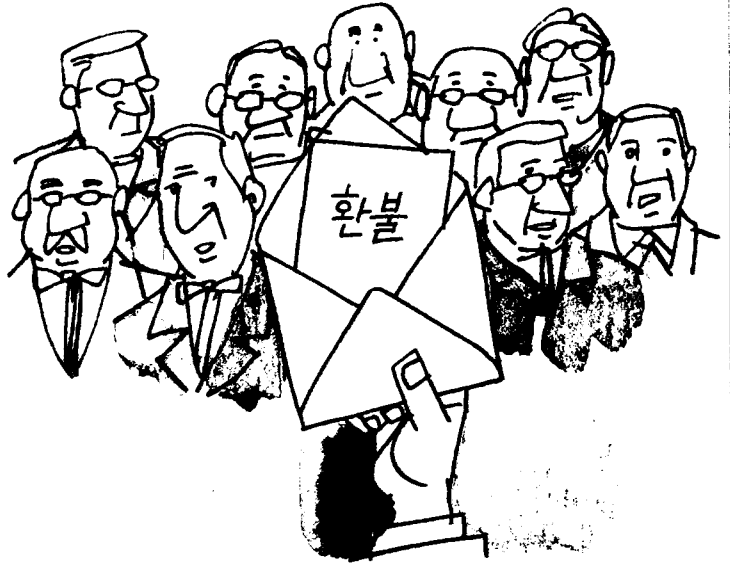
13센트를 위해서

재미 나는 사실
- 사실이란 실제
일어난 것을 가르킨다 - 이 하나
있다. 물론 극히 단편적이지만
부자가 되는 게 역세계도 좋은
운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남보다
피나는 노력을 더 해서인지를
짐작해보는 실험이 있었다.

미국의 인기대중잡지
스파이(SPY)지가 한 실험인데
재력을 겸비한 내노라하는
유명인사들의 근검절약테스트를
통해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같은 부를 이루고사는지, 또
유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스파이는 최근
'환불결제대행사'라는 위장상호를
써서 엄선해 고른 58명의
갑부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을 보면, "... 컴퓨터의
실수로 귀하가 아래와 같은
금액을 추가 지불하였기에 이를
환불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소액의 가계수표를
동봉했다.

우디 알렌, 캔디스 버겐, 레너드
번스타인, 톰 브로커(NBC방송
앵커), 마이클 더글라스, 미아
패로우, 더스틴 호프만, 키신저,
카쇼기(무기거래상), 도널드
트럼프(부동산업자), 로버트
머도크(언론재벌) 등 미국내
쟁쟁한 갑부들은 1달러
11센트(한화 약 780원)가 적힌
수표를 받아보았다.



2개월이 지난 후 짐계해보니
놀랍게도 마이클 더글라스, 웨이
더나웨이, 미아 패로우, 카쇼기,
트럼프, 머도크 등 26명의
저명인사들은 성가신 서류작성을
마다않고 1달러 11센트를
은행에서 인출했다.

다시 이번에는 1달러 11센트를
무시한 채 찾아가지 않은
32명에게 앞서의 편지와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써 2달러(한화 약
1,400원)를 찾아갈 수 있는
미끼를 던졌다. 여기에 캔디스
버겐, 리처드 기어 등 6명이
걸렸다.

이제 금액을 다시 한번 내려
64센트(한화 약 450원)를
찾아가게 했다. 옹한 사람은
13명으로 그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카쇼기, 머도크, 트럼프

등 거물사업가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는 카드
한 장을 더 들었다.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자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띄웠다.
"...귀하는 얼마전 사무착오로
인해 발생한 64센트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77센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 13센트(한화
약 100원)를 환불받으십시오."

단돈 13센트. 과연 이 돈을
누가 찾아가랴. 두 사람의
역만장자 카쇼기와 도널드
트럼프가 주인공이다. 한때
재산가치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원이상이
되었던 세계적인 무기거래상
카쇼기와 미국 최고의 재산가로
알려진 트럼프. 부를 이루기

위해선 뛰어난 사업수단과 함께
알뜰, 절약도 역시 비범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시대 지구
반대편에서 좀더 잘 살자고
바둥거리는 우리나라, 한국의 한
신문을 보자. 이유야 신용카드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된 결과로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은행의
휴면예금, 즉 거래액이

1만원 - 무려

1만원이다 - 미만으로 1년이상
거래가 없어 거래중지계좌로
처리된 예금액이 640억원. 88년의
425억원보다 50.1%나 증가한
액수이다. 국민은행이 156억원,
한일은행이 74억원, 농협이
61억원 등등. 은행들은 휴면예금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된이후에도
예금주의 지정청구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걸쳐 항상
지급해주고 있고 5년이상
예금주가 예금인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도래해도 예금인출에
응하고 있다.

은행이 이런데 증권은 또
어떤가. 임자없는 주식이 7월
21일 현재 930만 2천 6백주. 당일
가중주가 평균 1만 6천원으로
환산할 경우 1천5백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0.2%가 주인 모르게,
또는 주인의 게으름과 망각으로
방황하고 있다. 증권용어로 이를
미교부주식이라 하는데 곧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주주에게
신규배정된 주식중 주주가
인출해 가지 않아
결제보관창고에 남아있는 주식을
말한다.

은행과 증권, 각각 1인당
얼마만큼 해당되는 금액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규모만은
어마어마하다. 둘을 합쳐
2천1백40억원.

내일의 새싹이라는
국민학교에는 주인없는 물건이
쌓여간다. 적게는 볼펜에서부터
도시락, 시계, 걸옷, 운동기구,
책들까지. 국민학생 용돈을
가지고는 손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금액의 물건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잃어버린
것은 누가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는 불신이

아이들에게까지 자리한 것인지,
또는 까짓것 쉽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들 있는 것인지.

택시운전기사들도 거스름돈
50원은 언제부터지 주려하지
않는다. 달라고 손님이 해야,
그저서 50원짜리를 찾고 맥빠진
듯 건네준다.

작은 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왜 잊고 있는지.
티끌모아선 내집하나 장만할 수
없다는 체념, 그리고 돈이 돈을
낳는다는 믿음으로 푼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는 1부터 세어야
백이고 만이고 억을 이룬다.
독에도 물 한바가지씩을 차곡히
넣어야 하듯. ●

